

지역 소식통

부안마실축제 안전점검 실시

정읍시 연지동주민센터 어버이날 맞이 간담회

정읍시 연지동주민센터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최근 경로당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평소 경로당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함은 물론 애로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주민센터는 카네이션과 선물(양말세트)도 전달해 간담회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한 경로당 회장들은 "평소 경로당 운영에 있어 회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주민센터에 감사 드린다"며 "특히 올해도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준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회원회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어린이집 어울마당 그림잔치 '성향'

정읍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선미)가 주관한 '제19회 정읍시 어린이집 어울마당 그림잔치'가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참가 어린이들은 화폭 가득 동심을 담았고 현장에서는 그림 전시와 페이스페인팅, 팝콘 부스 등 다양한 체험놀이도 진행됐다.

아동과 보육교사가 어우러져 더욱 의미를 더한 이날 행사는 그림 그리기를 통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웃리치 활동 펼쳐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진남표)가 지난 5일 어버이날을 맞아 고창읍 성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이웃리치'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는 이동상담의 하나로, 이날 '제 95회 어버이날'을 축하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과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센터 상담사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고창읍성을 찾은 청소년과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나 성격 등 간담회심리검사를 통해 가족간에 서로 이해를 넓히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저학년 아동들은 모양성 그리기와 요요 만들기 무료체험을 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군, 안전관리 실무위서 논의사항 중점 점검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제25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축제장 안전점검을 지난 4일 진행했다.

전북도 안전관리지문단, 부안군청,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KT 부안지점 등이 참여한 이번 점검활동에서 부안군은 제2회 부안오복마실축제장 곳곳의 안전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특히 부안오복마실축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개막식 및 폐막식과 김덕수 사물놀이, 여는·닫는마당, 축하공연, 뮤지컬갈라쇼, 안산시립국악단 공연, 광명시립합창단 공연, 마실출경연대회, 대동한마당, 춤추는 마실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되는 주 무대에 대해 세세한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부안군은 제25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제5회 부안오복마실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축제장 안전점검을 지난 4일 진행했다.

무대 주변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주변 위해요소도 점검해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행사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인했다.

안전요원은 관람객의 돌발행동에 대한 통제,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상황보고, 화재발생시 관람객의 대피통로 안내 등 주요 임무를 맡게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 어린이 민속 큰잔치 개최

제기차기 · 투호 · 장구 배우기 · 리본 만들기 등 마련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제95회 어린이날'을 맞아 '고창어린이 민속 큰잔치'가 지난 5일 고창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고창어린이 민속큰잔치는 고창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가 주관해 개최됐으며 고창경찰서, 고창병원, 고창소방서, 고창고, 고창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다듬이소리와 마당기 입장으로 시작됐으며 대회식에서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어린이와 학부모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고창교당 양인경 교감의 대회선언과 모범어린이 표창장 수여, 어린이날 노래, 몸풀기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기차기, 투호 등 20가지 민속놀이를 즐기며 장구배우기·리본만들기 등 문화마당과 화재진압, 교육, 여러나라 옷 체험 등 체험마당과 함께 어린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퓨전마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다듬이소리와 마당기 입장으로 시작됐으며 대회식에서는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장,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어린이와 학부모 1500여명이 참석한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와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면 행단마을 주민들은 시산리 소재 행단 소하천 가꾸기 협약을 갖고 하천 관리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시산리 행단 소하천 관리 힘 모은다

정읍시-섬진강수력발전소-행단마을 주민,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와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면 행단마을 주민들은 시산리 소재 행단 소하천(이하 행단천) 가꾸기 협약을 갖고 하천 관리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날 40여명의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 행단천 구석구석에서 쓰레기를 수

거하고 지장 수목과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화활동도 가졌다.

협약식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소인 섬진강수력발전소 권순관 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펼쳐왔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와 가꾸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단마을 주민들도 "앞으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쓰레기와 폐기물 투기 방지, 지장 수목 제거에 나서는 한편 초화를 심어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행단천 1.4km에 22억원(국비 11억, 시비 11억)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귀농교육생, 산내면 황토마을 콩미인 체험

정읍시 귀농귀촌협의회는 정읍시 귀농학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산내면 황토마을 콩미인(대표 김희수, 이하 콩미인) 체험행사를 가졌다.

콩미인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 산업인증을 받은 업체로, 2014년부터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해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고추장과 된장 담그기는 물론 구절초와 청국장을 이용한 천연 에센스 만들기를 비롯 천연한방삼푸와 비누·바다위시 만들기, 낫뜨 김밥, 낫뜨 양갱 만들기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이날 귀농학교 교육생들은 육정호와 황토마을의 유래, 그리고 역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태산명차 명장이 만든 구절초 꽃차와 콩미인에서 직접 제조하고 있는 청국장분말, 그리고 어성초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한방 삼푸 만들기 등을 체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GOCHANG COUNTY

한국인의 본향 고창, 도깨비가 사랑한 청보리밭!

제14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2017. 4.22(토) ~ 5.14(일) 23일간
전북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장 일원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